

2004년 오리산업의 정책방향 및 향후 대책

•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병임 사무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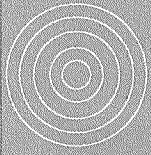
조병임 사무관

1.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오리협회지를 통하여 오리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리산업은 2002년 이후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산지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유지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연말에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으며 오리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국민총소득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년에는 27.4%수준이었으나 '90년에는 8.5%, '02년에는 4.0%로 크게 하락하여 농림어업 분야는 위축되고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분야중 축산업은 경종농업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농촌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왔으나 이제는 위생, 질병, 방역 등 안전성 확보에 의한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오리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숙원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오리 산업의 정책과 앞으로 오리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하여 강구할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2. 2004년도 오리산업 정책

가. 오리 수매 및 도태사업

지난해 12.10일에 충북 음성에서 국내 처음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하여 3.20일 경기 양주 최종발생으로 총 19개 가금농가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중 오리농가가 10개 농가였다.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위험지역), 예방적 살처분 등에 의하여 오리가 총 964천수(종오리 114, 일반오리 850)가 살처분되었다.

정부에서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심리로 오리고기 소비를 기피하여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수매를 실시하였다. 최초('03.12.24) 계획 수립시에는 오리의 살처분 수수가 많아 150천수를 책정하였으나 베트남 및 태국 등에서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인명피해 보도로 오리고기 소비가 급감하여 2차례(1.8: 400천수, 1.26: 1,100천수)에 걸쳐 물량을 확대하여 최종 1,100천수를 책정하였다.

오리수매가격은 지육kg당 1,850원으로 1.2.부터 3.10일까지 총 3.411톤을

수매하였으며, 품대·도압비·운반비 및 보관비등을 고려한 수매원가는 지육 kg당 2,372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수매오리고기 물량과 수매원가를 고려할 때 총 수매비용은 81억원수준되며, 수매 오리고기는 산지오리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하여 복철 대비 공급확대를 위하여 7월초부터 방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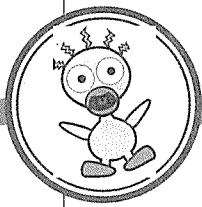
오리 사육수수가 오리고기 수요량보다 과잉되고 단기간 내 소비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여 중장기 대책으로 종오리와 오리종란을 도태 및 폐기하였다.

종오리는 2.13부터 3월10일까지 당초 계획대로 100천수를 도태하였으며 종오리 수당 11,000원에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오리 종란 폐기 계획물량은 1,750천개인데 2.20부터 3.15일까지 계획대비 약 48%수준인 836천개를 폐기처분하였고 종란 개당 175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종오리 도태 및 종란 폐기사업에 총 1,247백만원이 투자되었다.

산지 닭 가격이 2월 중순부터 급격히 회복세를 보이자 오리업계에서 오리가격도 곧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여 종란 폐기를 지피하여 입식을 확대하여 914천개 종란을 덜 폐기한 것이 산지 오리 가격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

나. 오리자조금사업 활성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2년부터 임의자조금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자조금 참여율이 저



조하여 무임승차가 많고 자조금 조성액이 많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 자율적인 축산물소비 홍보 및 수급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무자조금제 도입을 위하여 축산물의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02년에 제정되었다.

오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의 자조금 대상 품목이었으나 금년까지 운영 실적이 없으며 양돈, 양계, 낙농 등 3개 품목만이 시행되었다.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리의 경우에는 '04년부터 5억원이 계산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농가의 조성액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는 축산물의 소비홍보,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사용되어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다. 개방화 시대에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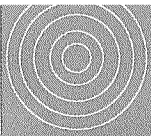
축산물의 대부분 축종은 '05년부터 자조금사업에 모든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오리업계는 아직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정부는 한국오리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오리 의무자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할

동자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며, 오리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 추진
생산자 조직을 통한 자율적인 양계산물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한 양계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수급안정을 위하여 '01년 농협중앙회에 양계수급안정위원회사무국을 개설하였다. '04년부터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가금수급안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리분야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사업추진방법은 축산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거기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금으로 사용되며, 2001년에 양계 500억원, 양돈 500억원을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고, '04년에는 오리분야 지원확대를 위하여 돼지에서 250억원을 삭감하여 가금분야를 500억원에서 750억원 증액하고, 돼지는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삭감하였다. 75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수익금은 연간 약 44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04년도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오리고기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오리고기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TV를 통한 PPL 광고와 전국 동시 캠페인실시 및 리후



렛(천만부)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추진으로 2월하순부터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오리고기 소비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5월2일을 오리데이로 정하고 서울 명동에서 오리고기 시식회 행사를 추진하였고, 지하철역사내에 대형위성광고를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오리고기 책자 제작 및 보급(4만부) 등 예전의 수준으로 소비회복을 위하여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리분야에 투자된 홍보비는 약 750백만원으로 유사 이래 가장 많이 지원되었다.

오리고기 수출확대를 위하여 오리수출물류비(383원/kg)의 24%(92원/kg)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예산으로 금년에 처음 지원하고, 26%(100원/kg)는 농안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고기 수출부진이 예상되어 지원실적 및 집행실적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초에 종오리 및 오리종란을 감축하기 위한 도태 및 폐기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오리고기 과잉공급에 따른 산지오리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폭락우려는 적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으로 생산조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10억원(닭도 포함됨)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앞으로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예산은 단편적이고 일회성인 생산조절사업 보다는 소비홍보사업 및 조사 및 연구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부터 오리분야가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에 포함되어 오리의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에 오리분야 인사도 참여하게 되어 오리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집중 투자될 것이다.

라. 오리 등록제를 조기 도입을 통한 수급조절

축산업 등록제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를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하여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축산물브랜드 육성 등 축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제도 구축을 위하여 '02.12월 축산법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리 관련 등록제는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이며, 종축업 및 부화업은 기존에는 신고제로 하던 것을 등록제로 강화한 것이어서 기존에 신고한 자는 등록된 자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가축사육업 등록은 '05.12.26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오리 알을 부화하여 판매하는 부화업은 이미 등록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종축업에는 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씨알의 조건은 검정결과 종축(종오리)로 확인된 가축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오리의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검진결과 음성인 오리에서 생산된 알이 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리에 대한 중축검정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 당장 종오리업 등록제를 시행은 어렵지만 '06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중축업 등록대상에서 오리가 제외되어 F1등 오리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여 사육함에 따라 오리의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오리산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종오리에서 생산된 알만을 부화할 수 있도록 종오리업 등록제 시행이 하루가 급한 실정이다.

종오리업에 대한 등록제 실시는 오리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 오리산업은 공급과잉 구조에 있어 '02년부터 오리가격 약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종오리 사육수수를 국내 수요에 상응하는 숫자만을 사육하도록 하는 종오리 쿼터제 도입이 절실하다. 국내 오리 사육수수는 오리고기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증가하여 왔고 다른 농가가 줄이기만을 기대한 결과 현재 공급과잉으로 오리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방화시대에 수급조절은 오리농가 및 한국오리협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종오리 쿼터제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 가축사육업에는 현행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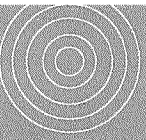
상에는 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종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오리도 신고대상 가축사육업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닭의 경우에는 가축사육면적이 300㎡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다.

3. 맺는말

우리나라의 오리 사육수수는 88년에 502천수에서 '03년에는 9,017천수로 14년동안 18배로 매년 크게 증가하여 양적인 성장을 하여 왔다. 특히 '01년이 후 부터는 오리사육수수 증가율이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 오리산업 구조를 과잉 공급구조로 만들어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앞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리 산지가격이 생산비이하에서 유지될 개연성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오리 쿼터제 실시이전까지는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적정 오리 사육수수의 규모를 정하고 이를 실천할 방안을 오리농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오리농가에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이동통제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와 피해를 엄청나게 끼쳤었고, 살처분 가축의 매물과 도로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로 환경오염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가



금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오리산업이 되기를 기원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공급과잉 기조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리고기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리고기 우수성을 홍보 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광고가 절실하고, 어린이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요리와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오리도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 오리산업은 수급 및 가격불안정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오리농가가 힘을 합칠 경우에는 반드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리가족 여러분의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리마을 11/12

